COVER STORY

하나의 선인 원라인(One-line) 기법으로 보는 이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실재 하지 않는(Non-existent) 세상을 그려내는 차한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다양한 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지의 여러 인물은 하나로 얽혀진 형상에서 '관계란,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다 보면 이 시기 또한 지나리라 믿습니다.
모두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세요.

- 차한별
〈Non-existent 20200130〉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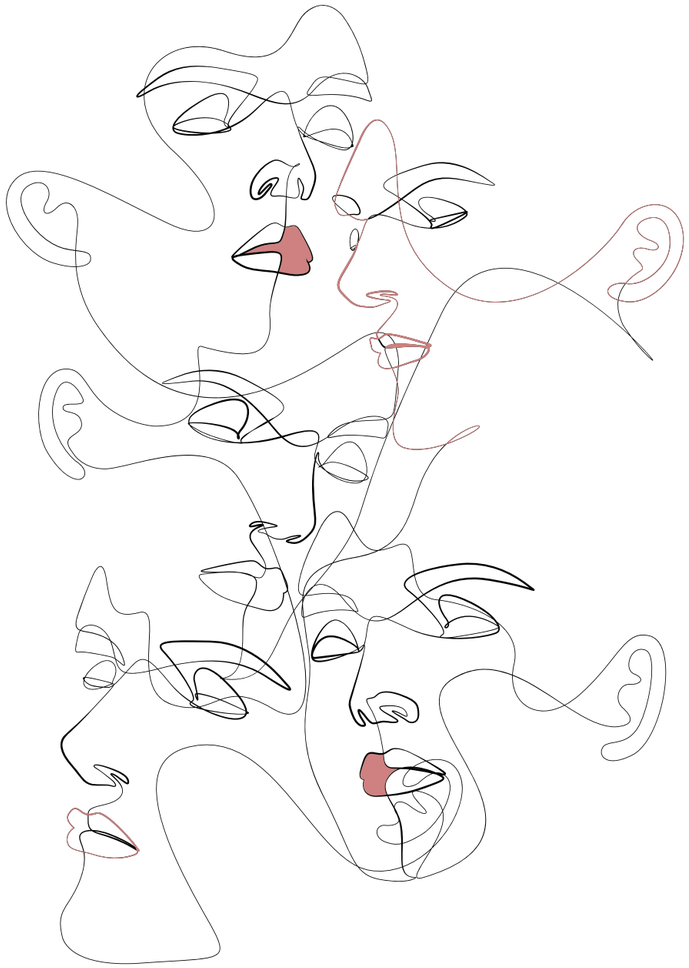
온라인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 친구가 되어주세요!

facebook www.facebook.com/seoulnoin
YouTube www.youtube.com/channel/UCjN-vXNFhKoB5kGUa17_CSg
kakao http://pf.kakao.com/_ZrQxhT

2020년 봄호 | 통권64호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 Tel. 02.6220.8500 Fax. 02.6220.8608 www.seoulnoin.or.kr |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2020. Vol. 64



서울 만남 미래

관계: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자유로운 **만남**
활기찬 **미래**

Vol. 64

서울|만남|미래
2020. Vol. 64

계간 서울|만남|미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펴내는
소식지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관계의 시작이자 인연이다.”

탑골미술관 세대기획전 〈나이·차이·그 사이〉 크로스 드레싱 촬영 현장 중에서

통권 제64호 **발행처** 서울노인복지센터
발행인 희유 **발행월** 2020년 5월
편집인 안정만 **진행** 허수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전화 02.6220.8500
홈페이지 www.seoulnoin.or.kr
디자인 디자인공작소

어디서

02 마음을 이어가는 글_ 사람 향기가 그리운 날에
04 더 이상한 복지관_ 2020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방향

무엇이 되어

08 共感_ 선연善緣이 만드는 더불어 사는 숲
10 특별기획 : 공간탐구생활_ 광장아, 마음껏 부풀어라
12 현장돋보기_ 〈나이·차이·그 사이〉
14 교양 오디세이_ 탑골TV, LIVE 온(溫)
16 스포트라이트_ 나에게 맞는 동아리 찾기!

다시

20 시선의 확장_ 함께 할 우리를 위해
22 이끄는 삶_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4 건강놀이터_ 기억을 걷는 시간 ‘기억, 돌봄’
26 꽃보다 할배_ 피라미드 그 안을 들여다보다
28 내:일의 디딤돌_ 신新직업 탐구생활

만나는가

32 일상 속 관계_ 나눔의 미학
34 사람과 사람의 인연_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
36 센터의 숨은 주역_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38 씨네talk_ “행복은 작은 데에 있다.”
39 TOPGOAL NEWS_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지난 소식

사람 향기가 그리운 날에

“꽃의 향기는 바람을 따라 향기를 풍기지만,
어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풍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향기다.”

- 잡아함경(雜阿含經) -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希有) 합장

코로나19로 어수선해도 봄바람에 실려 오는 꽃향기가 향기롭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해도 어김없이 자연은 이리 또 향긋한 봄을 선물하며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일상에 대한 마음은 더욱 짙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관계의 힘인 듯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 저런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인(人)’이라는 글자만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우리들 삶 또한 관계 속에서 엮여 나가는 것일 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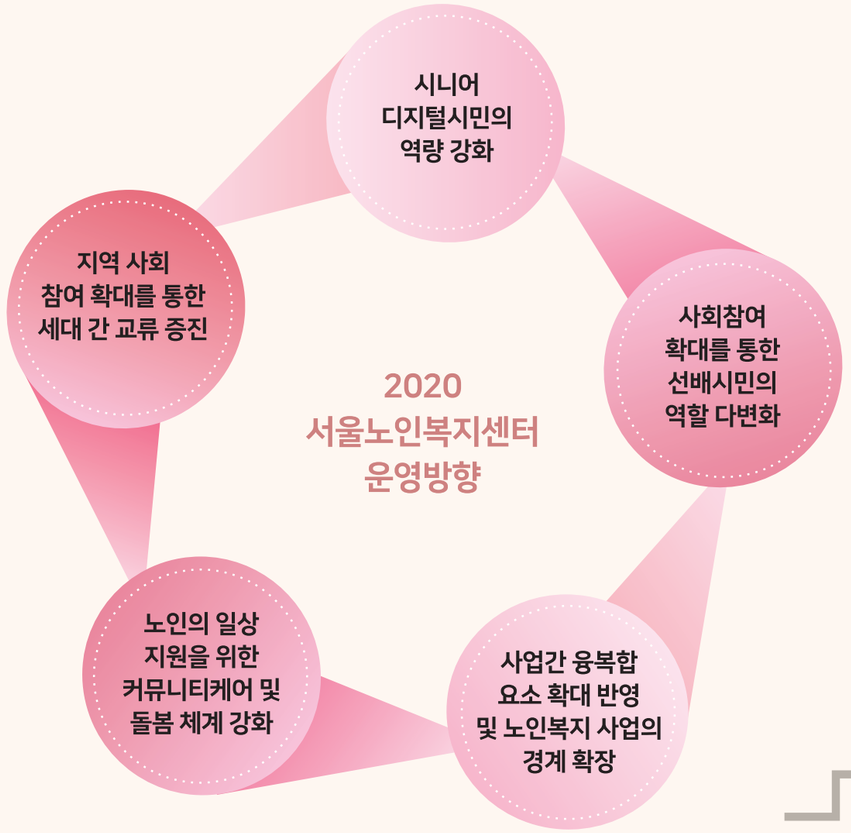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득 관계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관계(關係):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처럼,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봉사자, 후원자, 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탄생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 인도 바이샬리국에 전염병이 돌았다던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때 부처님께서 찾아와 제자들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깨끗이 한 뒤 밤낮 없이 보배경을 독송하며 전염병을 퇴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는 그간 욕심을 한껏 부리고 살아온 우리에게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며, ‘자연과 나, 나와 너, 우리들’이라는 관계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으니 나만을 위해서는 결코 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배워가는 시간들이기를 희망하며, 이 계절에 꽃향기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로운 사람, 서로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만남 마음

2020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방향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더 이상한 복지관'이라는 철학이 담긴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함'의 의미는 차별적인·그 이상으로·독특한·이상적이라는 다양하고 열린 지향을 담아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생소한 단어가 평범했던 일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듯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일에, 새로운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새로운 과제와 가능성을 찾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시민의 역량에 필요한 경험과 교류가 어르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2020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 키워드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다양성』, 『공감』, 『공존』

세대 간의 다양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장하고,
공존하는 일상에 대해 탐색해 나가다.

- 다양성 〉 참여미술프로젝트, 시니어아트페어, 선배시민열전
- 공감 〉 요리교실, 찾아가는 영화제
- 공존 〉 신인작가 공모전, 공유복지, 나눔축제

융복합

『배움』, 『경험』, 『참여』, 『광장』의 융복합

배움과 경험을 통해 선배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융복합적인 광장의 역할을 수행하다.

- 배움 〉 노년설계교실, 교양교육 '지혜의 숲'
- 경험 〉 상상교실, 시니어공방, 탑골대동제
- 참여 〉 선배시민교실, 어르신권익위원회
- 광장 〉 서울노인영화제, 탑골미술관, 이용문화토론회

균형

『일상』, 『쉼』, 『사람』, 『지역』의 균형

일상과 쉼의 균형을 조절하며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 세대 간의 연대로 선배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다.

- 일상 〉 세대공감 후원사업, 돌봄프로그램
- 쉼 〉 상담카페, 탑골독립영화관
- 사람 〉 실천가 아카데미, 좋은인연
- 지역 〉 빨강상담소, 도담도담 콘서트

지역은 사람, 상호작용, 공간 그리고 유대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이용하는 곳으로 지리적 공간의 개념 이상으로 지역을 규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위한 다양한 균형점을 찾아 2020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 맑남 미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서울노인복지센터
고난했던 지난 날의 보상입니다."

오늘 사진관, 박상태 어르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선연善緣이 만드는 더불어 사는 숲

글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사진제공 조계사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연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번 「서울 | 만남 | 미래」에서는 지역사회에 앞장서서 자비를 실천하는 조계사 주지이신 지현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법종스님을 은사로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등 역임.
현재 조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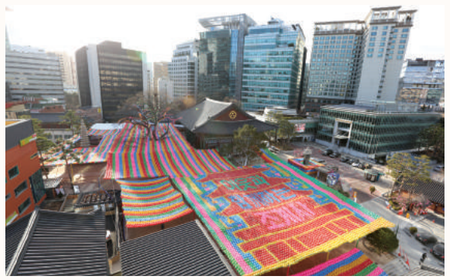
저서로는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가 있다.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만드는 숲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만듭니다. 그 씨앗은 돌보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임제록〉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우리가 서 있는 곳 모두가 참 진리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궈가며, 주변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올해 조계사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라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위해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이 출범하면서 그 움직임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건강하고 웅장한 숲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조계사를 통해 모이는 다양한 인연들의 힘을 보며 더불어 만드는 숲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함께 더불어 걷는 인연을 위하는 마음

한 언론에서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논할만큼 유례없는 사건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사는 숲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저는 더불어 사는 숲을 만들었다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숲을 함께 만들기 위해 더불어 걷기 시작한 사람들의 인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이 거름이 되어 새로움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진정한 삶이기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숲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아끼는 많은 어르신들도 나이를 떠나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따뜻한 위로 한마디

더불어 사는 숲으로 걷는 여정에서 조계사가 우리 사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에 늘 고민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위기가 일상이 된 시기에서 조계사는 더더욱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혈액 수급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자비의 헌혈운동을 펼쳤고, 종로 지역 어려운 이웃 500여 가구에 생필품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얼핏 '더불어 사는 숲'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하는 삶의 과제를 뚫고 나가는 동안, 수많은 선연과 숲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가족, 이웃, 도반의 많은 선연(善緣)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덕분에 내가 무소의 뿔을 갖고 내달릴 수 있었으며, 이들 덕분에 함께 사는 숲을 이룬 것입니다.

더 없이 사랑하라!

〈입보리행론〉에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아주 드무니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맺고 있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더없이, 후회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경내를 장엄한 도량등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의 표어처럼 서울노인복지센터도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선한 인연의 끈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기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만나 뵌 지현스님의 말씀처럼, 선한 인연을 만들고 모아 사회에 큰 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만남 미래

광장아, 마음껏 부풀어라

글 복지사업부 안정만

누군가 무심히 한마디 툭 던진다.
딱히 아는 사람은 아닌데 같은 시대를 살아온 터라 부담이 없다.
몇 마디 주고 받다보니 생각에 겹침이 느껴지고
무덤덤하던 얼굴에 표정이 돋는다.
곧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 같은 설렘도 느껴진다.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층층이 있는 센터 로비는 광장이다. 로비의 넓이, 로비에 놓인 의자의 밀도는 어르신들의 상호작용에 비례하고, 드나듦과 머무름의 정도로 광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사실 광장에는 누가 와도, 어떤 말이 오고 가도 상관없다. 그래도 복지관이라 서로의 배려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두 금기어는 존재한다. 종교와 정치. 굳이 하나 더 보태자면 누군가의 말의 향연이 다른 누군가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배려면 족하다.

복지관 나이는 스물을 앞둔 청년이지만, 건물의 나이는 환갑을 향한다. 그새 센터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도 칠십 후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랜 인생경험은 단단한 기준이 된다. 내 경험이, 내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땐 다른 인생, 다른 가치가 자리 잡을 틈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그 틈이 넓게 자리잡는 순간이 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어도,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끄덕임을 동반한 공감이 퍼지는 경우다. 오늘 아침은 챙겨 먹었는지, 지난 주 감기는 괜찮아졌는지,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손자녀는 잘 크고 있는지. 한창 바쁘던 젊은 시절,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무심히 건네던 안부보다 더 정겹다.

광장은 북적임과 한산함을 반복하며 다른 광장이 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되거나 새로운 행사를 알리는 복지관 직원의 간절한 외침에 일순간 공터가 되었다가 다시 광장이 된다. 누군가 자리를 뜨고, 다른 사람에 의해 메워지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낯선 침묵이 흐르기도 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장이 문제지, 넘치는 광장은 멋지다. 센터 로비에선 광장을 메울 새로운 이야기가 넘친다. 직원이 새로 붙인 게시물, 새로운 직원의 등장, 관장스님의 표정과 걸음을 쫓는 시선, 어제 들은 강사의 수업내용, 한동안 소식이 뜸하던 동년배 노인의 반가운 얼굴, 새로 온 어르신에게 "내가 개관 때부터 다녀서 잘 아는데..."라고 시작하는 어르신의 자체 오리엔테이션까지. 로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널찍한 마법 카펫이 깔려있다.

센터 2층 로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많은 어르신이 앉던 일직선의 의자 대신 둥근 테이블, 네모 모양의 테이블들이 들어서고 분리된 의자들이 놓인다. 정면으로 상대만을 응시해야 했던 의자에선 시선을 옮기려면 몸을 틀거나 자리를 옮겨야 했다. 테이블이 생기고 의자를 움직여 앉을 수 있으니 자유로워진 시선으로 새로운 광장이 탄생할 듯 싶다. 말의 주고 받음이 주는 단조로움에 가끔 변조를 실어볼까, 흑등고래 같은 그랜드피아노 하나를 턱 하니 놓았다. 음악이 흐를 광장은 벽 없는 예술의 전당이 될 지도 모른다. 연주자가 앉는 순간, 광장의 어르신들은 모두 관객이 된다. 서울만남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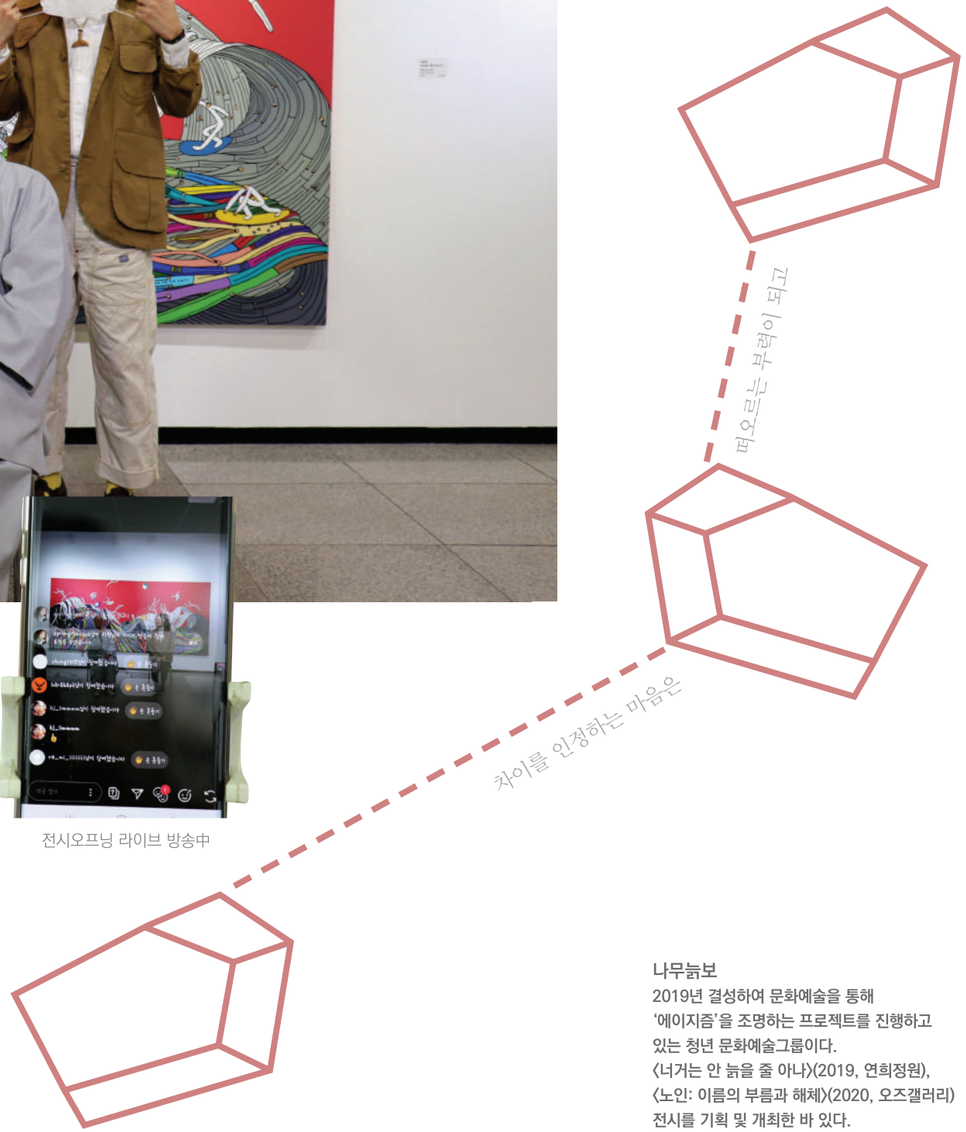
전시오프닝 라이브 방송中

모두가 다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차이, 그 사이의 풍경을 보던 순간

<나이·차이·그 사이>

글 공유복지과 이효정

세대 간의 차이를 하나의 섬과 바다에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바다는 하나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섬을 보기 위해, 바다를 알고 싶어서 다리를 놓기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과 바다의 진짜 모습은 섬과 바다 그 사이의 간격에서 만들어지는 풍경이 품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전시는 세상의 무수한 차이 중에서 나이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좁혀야만 하는 간극 혹은 하나의 갈등으로 인식되지는 않으신가요? 탑골미술관에서는 이 차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특별한 전시 세대기획전 〈나이·차이·그 사이〉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춤을 추는 작업 '정육면체'가 기억에 남아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저희의 보폭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일이 어르신께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죠. 우리가 함께하려면 서로 더 자주 만나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발맞춰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 나무늙보 한은진

올해 탑골미술관은 '주인공'이라는 대주제로 3개의 기획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포문을 연 세대기획전은 청년 문화예술그룹 '나무늙보'가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나이를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그 사이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청년과 노년의 기타와 해금 협연공연으로 막을 열었던 전시는 탑골미술관 SNS를 통해 생중계하며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울 관람객들을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시를 설명하는 '온라인 도슨트', 기획자 및 작가와 관람객 모두가 전시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엔딩 크레딧' 영상 역시 홈페이지와 탑골TV를 통해서 선보였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된 모습을 이렇게 전시로 보여줄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어요. 또 작품을 통해서 젊은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나의 생각도 싱싱해지는 것 같고, 나도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원더풀!"

– 이윤옥 어르신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로 만들어진 차이 역시, 저마다 소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모였기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다양한 공존의 상태로 해석한다면, 서로를 더욱 깊이 알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만남 미래

나무늙보
2019년 결성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에이지즘'을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그룹이다.
〈너거는 안 늙을 줄 아나〉(2019, 연희정원),
〈노인: 이름의 부름과 해체〉(2020, 오즈갤러리)
전시를 기획 및 개최한 바 있다.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 〈도약의 단초6〉 작가 공모 안내
6.15(월)–6.22(월)
생애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신인작가 여러분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문의 : 02.6220.8502

탑골TV, LIVE 온溫

글 공유복지과 장세진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공적마스크, 자가격리 등 생소한 단어가 일상이 된 지금,
사회복지사들 모두 감염예방 그리고 어르신과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미래를 한층 끌어당겼다고 표현하며
우리 사회 전반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된 만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탑골TV」를 만나는 방법 〉
유튜브에서 '탑골TV'를 검색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YouTube

유튜브「탑골TV」는 2001년 탑골공원 성역화 일환으로 문을 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2020년 어르신 온라인 문화의 중심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양, 건강, 권익정보, 문화예술, 오락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관장스님의 명상부터 드로잉교실, 치매예방 체조, 간단요리교실 외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르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알음알음 배워왔던 춤 실력으로 집구석 댄스교실을 열고 어르신들께 춤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더불어 영상 도구와 저작권 등의 문제를 촘촘하게 점검하여 교육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만남의 방법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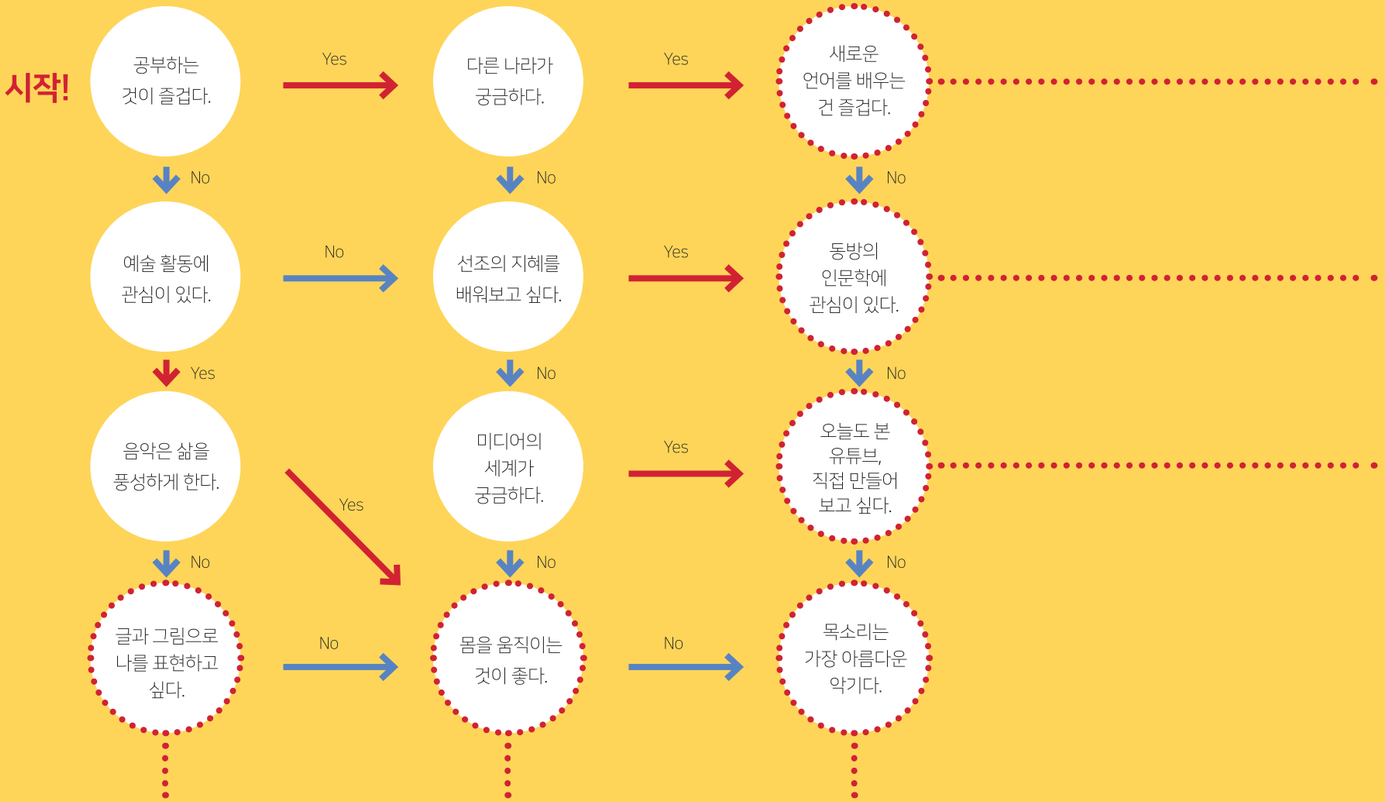
그 밖에도 올해 교양교육은 어르신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다양한 경험이 마치 깊고도 즐거운 지혜의 숲길을 거닐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과의 만남이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걷는 철학교실 속 배움의 숲길로 오세요. 서울 만남 미래

나에게 맞는 **동아리 찾기!**

센터 생활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드는 방법

글 참여복지과 심규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부터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위해 같은 취미를 가진 어르신들끼리 모여 함께 배우고, 전시와 공연 활동, 친목까지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혹시라도 선택이 어려워 고민하셨거나, 가입 방법을 몰라 고민하셨다면 나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D type

문방사우만 있다면 세상에 담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

문예와 창작을 사랑하는 당신!
글과 그림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요?

서우회, 안묵회, 한글서예 화서회, 서양화, 시와 수필의 만남

E type

취미는 언제나 흥과 새로운 도전이다!

몸과 마음의 활기를 중요시하는 당신.
춤, 악기, 연기에 건강까지!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세요.

비천무(한국무용), 한마음(스포츠댄스) 오색단비(연극), 풍물, 가야금, 홍백(게이트볼)

F type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모여 인생을 노래하다.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아름다운 선율을 선호하는 당신!
우리 함께 노래로 소통해요.

금빛예술단, 백합화합창단(여성합창) 판소리남도민요, 플라이대디(남성합창)

A type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들을 문화와 언어로 만나다.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하시군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함께 공유해보세요!

팝송, 잉글리시클럽, 우호

B type

선인의 지혜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다.

역사, 사자소학, 논어 등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당신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혜를 배워보세요.

문화사, 송산, 문화애호, 한문

C type

정보화 시대, 우리는 영상으로 소통한다.

정보화시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당신.
나만의 동영상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D/M, 컴사랑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❶ 2층 사무실에서 동아리 가입을 상담한다. ❷ 동아리 활동시간 및 장소를 확인한다.
❸ 동아리 활동 참관 및 체험을 한다. ❹ 동아리 가입 후 즐거운 동아리 생활을 즐긴다.
❺ 나에게 맞는 동아리가 없다면, 마음 맞는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동아리를 만든다!

● 문의 : 심규희 사회복지사 02.6220.8554

"편안한 센터 사람들과의 교감은
내 생활의 활력이 되어요.
이 초록이 그 마음을 닮았어요."

오늘 사진관, 최규종 어르신

그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together

함께 할 우리를 위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꾸려나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양교육, 그 안을 들여다보다.

"지금 이 나이에 갈 곳이 있는 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글 지역복지과 조하람

나와 동료가 서로를 존중하며 만남은 벗이 되고 오늘은 즐거움이 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여자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지난 1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노인의 이해,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자기건강관리법, 치매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스트레스관리법, 위생교육 등 활동 시 필요한 알짜배기 교육만 쏙쏙 골라서 참여했던 어르신은 그 날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삼일대로지킴이 활동에서 서로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서로를 배려하며 친하게 지내면 활동하는데 있어 특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삼일대로지킴이 김영규 어르신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롱의 뜻과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에는 신속히 사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오해를 풀어주도록 하고싶습니다."

– 건강지킴이 이윤재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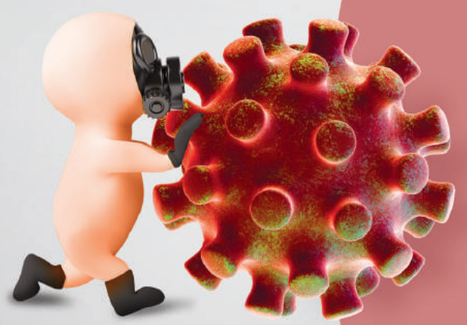
"칭찬과 사랑으로, 사랑과 칭찬으로! 계속 되뇌어야겠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한 인격체로 대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도록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 꿈나무지킴이 유양숙 어르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 위생 및 습관을 잘 숙지하여 좋은 영향력을 행 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건강지킴이 김치경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벗과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지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만남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
올바른 예방수칙과 건강관리로 시작해볼까요?

글 참여복지과 오서인

펜데믹의 한 가운데 있는 지금,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나타났던 바이러스성 질환인 사스나 메르스보다 감염성이 높고, 무증상 감염이라는 특이점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위생 습관으로 나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1 감염병 예방수칙

감염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평소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얼굴이나 입 주변을 만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기침이 난다면 옷소매로 가리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셀프 백신 올바른 손 씻기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2 홈트 유행시대

감염성 높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홈트)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흔한 수건만으로도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건강튼튼 수건 운동법

우리 같이 운동할까요?

지금보다 더 튼튼한 몸을 만들고 싶은 분,
여러가지 소도구로 재미있게 운동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10시(각 50분씩)
접수 : 물리치료실 무료 접수(회기당 선착순 10명)

- **목·어깨 튼튼운동**
- **치매예방 운동**
- **허리·하지 튼튼운동**

기억을 걷는 시간 '기억, 돌봄'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의 평균 기관 이용시간은 5시간!
'기억, 돌봄'은 복지관에서의 그 시간을 더 건강하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통합치매예방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건강을 돌봅니다.

글 참여복지과 문희정

5시간의 돌봄시계

09:00-10:00 건강체크

센터에 도착 후 2층 진료실에서
간호사를 만나, 간단히 건강을 체크해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12:00 기억걷기

인근의 걷기 좋은
명소들을 걷기전문가와
함께 걸어봅니다.
갔던 길을 한 발, 한 발
기억하며 걷는 게 포인트!

12:00-13:00 건강식사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돕는
건강한 점심식사를 함께 합니다.
영양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13:00-14:00 취미여가

배움에는 나이도, 장벽도 없다!
노래, 댄스, 그림, 영어배우기
어떤 것이든 좋아요.
새로운 배움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기억, 돌봄' 참여특전

- 체력 및 치매검진 제공
- 차곡차곡 내 건강예방 활동기록이 쌓이는 건강통장 발급
- 전문 건강상담(건강, 영양, 운동, 복지) 제공
-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활동 지원(걷기, 두뇌운동)
- 지역사회 건강관련 유관기관 견학
- 소정의 건강키트 증정

잠깐! 많이 걸으면 치매가 예방될까요?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이 정말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걷기운동이 치매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 걷기는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까지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심뇌혈관 및 근골격계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운동 시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코칭해 드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기억, 돌봄'과 함께 하세요.

'기억, 돌봄' 참여하고 싶어요!

- 참여방법 : 서울노인복지센터 2층 진료실 방문을 통한 접수(간호사 건강상담 필요)
- 참여대상 : 치매예방을 희망하는 센터회원 어르신 30명
- 프로그램 문의 : 진료실 문희정 간호사(02.6220.8532)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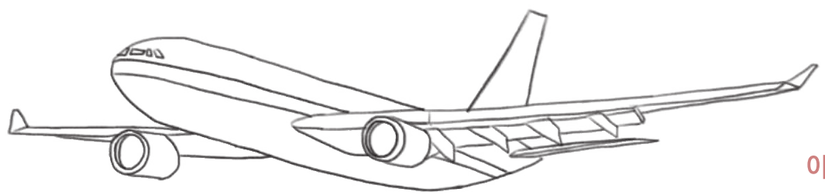
※ 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종로구청과 함께합니다.

스핑크스가 내 손으로

웅장한 피라미드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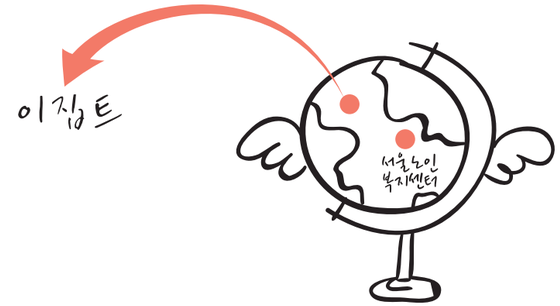
고대의 우월함과 찬란함, 숭고함이 느껴지는 장엄한 광경

피라미드 그 안을 들여다보다



글 서울노인복지센터 이덕기 어르신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달했던 카이로 공항.
고대의 우월함과 찬란함, 숭고함을 느끼게 하는 거대한 유적의 정교함과
치밀함이 감격을 주는 곳.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나이 산과 세계 3대 강의 하나인
나일강이 영광과 치욕의 역사를 안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4500년의 시간을 넘어 피라미드가 내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집트에는 약 90여개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중 이곳 기자에 있는 쿠푸왕, 카프레왕, 멘카우레왕 등 3개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의 빗면들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빗면의 각도는 모래를 한줌 잡아서 땅에 조금씩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뿔의 빗면 각도와 같다. 피라미드의 정밀성은 현대의 건축술로도 따라갈 수 없다니 불가사의의 극치가 아닐까 싶다. 단군 이전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피라미드 외부를 둘러보고 나니 내부가 몹시 궁금하다. 피라미드 내부는 경사가 45도가 넘는 통로의 양쪽에 레일 모양의 붉은색 나무 손잡이가 있고 군데군데 꼬마전구에 불이 켜져 있다. 내려가며 계단을 세어보니 210개 정도였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숙여 내려가는데도 세 번이나 부딪쳤다. 내부는 직사각형의 작은 면은 수직으로 올라가 네 면이 서로 맞닿아있다. 직사각형 입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 등에 소름이 돋는다. 한 동안 망설이다가 들어가 보기로 하고 발을 들여 놓았다. 팔로는 천장과 양 옆을 휘저어 보아도 아무 것도 감지가 안된다. 오직 발바닥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한 발자국씩 내딛는다. 마치 왈츠를 추듯. 여행 후 피곤한 몸을 끌고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희미한 동굴 속, 수많은 미이라가 손 들을 뻗어 나를 잡으려 한다. 손들을 뿌리치며 간신히 동굴 밖으로 나오니 찬란한 햇살에 눈이 부셨다. 소스라쳐 놀라 눈을 번쩍 뜨니 꿈이었다.

'꽃보다 할배' 코너는 이서진과 같은 사람 없이도 직접 여행을 준비하고 즐기는 어르신의 여행기를 전합니다. 다음 호에서 만날 어르신은 과연 어떤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까요? 설 맡 님 미리

이덕기's Tip

항공권 예약 :
투어 익스프레스, 와이페이모어

참고 도서 :
지중해(Follow me 시리즈),
한 달 간의 아름다운 여행(지중해 편)

신新직업 탐구생활

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 일자리 기반 조성,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그 가운데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확장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오늘 만나 볼 새로운 일자리는 병원동행 전문가와 도보배달원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병원동행 전문가

THE AROUND

병원동행전문가는 돌봄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하여 병원까지의 이동 및 접수, 진료, 귀가하는 전 과정을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진료가 필요할 때나 건강검진 시 내시경촬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혹은 항암치료와 같은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할 때도 가족을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디어라운드(the-around)'와 함께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로 병원동행전문가교육을 진행합니다. 요양보호, 간호, 간병과 같은 돌봄의 경력을 가진 구직자뿐만 아니라 경력이 없더라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4일간(총 24시간)의
'병원동행전문가교육' 이수를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만든 또 다른 직업
도보배달원

'1km 이내에는 걸어서 배달해드립니다!' 하루 10,000보를 걸을 수 있는 체력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우리 동네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배달 앱의 대중화로 배달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늘어나는 배달수요에 일반인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이용한 배달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보배달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1km 미만 근거리 배달을 하며 도보로 10~30분 정도의 배달지와 베이커리를 오가며 제과제빵류를 배송하는 업무로 거주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도보배달서비스를 운영하는 '엠지플레잉'과 함께 시니어들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낮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는 일자리보다 나의 삶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을 찾는 시니어에게는 도보배달원은 또 다른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만남 미래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교육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 중 취업 희망자(단, 취업알선은 만55세부터 가능)
- 신청절차 : 구직신청자에 한하여 내방 또는 전화로 신청
-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구직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본원 또는 거주지 인근 구청, 노인종합복지관 내방
- 문의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02.735.1919)

春風接人 和氣滿面

"봄 바람처럼
사람을 대하여
화평한 기운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오늘 사진관, 배진환 어르신

올해 봄날은 꽃이 피는 날이 아니라,
다시 만나 반가움으로 얼굴의 웃음꽃이 피는 날 일 것입니다.

나눔의 미학

글 공유복지과 허수임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우리 일상.
어려운 시기 무탈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센터에서는
어르신 면역력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휴관하였지만 센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3월이 제철인 파로 파김치를 담급니다. 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다듬은 쪽파에 양념을 정성가득 버무리며 맛깔난 파김치를 완성했습니다. 비타민, 영양 가득한 제철 파김치를 드실 어르신들 생각을 하니 힘이 절로 솟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르신을 뵙지 못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도 사실 끊임없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며,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고리가 되어 하나로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선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남이 뜸해 그 연결고리가 잠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중요한 건 끊어진 곳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누군가의 지침을 어루만지려는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로 향한다면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 않을까요? 설맞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

글 공유복지과 허수임
참여복지과 손연지

노년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센터 곳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록 개인의 자리와 삶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더 나은 모두의 노년을 생각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요?

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후원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가입했던 2014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센터에서 받은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건 나 스스로를 잘 챙겨야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센터를 다니며 매일 한 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태극권으로 몸 쓰는 법을 배우고, 매일 탁구를 치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유럽문화사,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교육을 들으며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센터 자랑을 그렇게 했다지요.

그렇게 받기만 하다 1년이 지났을 무렵, 후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체신청을 하며 시작된 후원은 사실 어느 순간 개인사정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후원을 다시 시작하려 2층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CMS라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깐요. 비록 센터에서 받아온 것만큼 돌려주긴 힘들겠지만
작은 마음을 더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해봅니다.

센터 회원 이두영 어르신

차곡차곡 쌓이는 봉사시간만큼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도 쌓여갑니다.

2006년 봄, 도반을 따라 센터 급식 봉사활동을 하러 온 뒤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저전달, 배식, 식기세척, 식탁정리, 채소 다듬기 등 만발식당에서 하는
모든 영역의 봉사활동들을 해보았고, 요즘은 식당 입구에서 입장하는 어르신들의 표를 받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어르신을 맞이하려 노력하다보니 어르신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듯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이처럼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주시고 반겨주셔서 매일 봉사활동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동료 봉사자들도 많이 사귀었고, 센터 선생님들도
잘 해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찾아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몸이 따라주는 한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오래도록
봉사활동 할 계획입니다!

이화순 봉사자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행복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글 공유복지과 허수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증권시장 지원, 투자자예탁금 및 우리사주 관리 등 자본시장의 안전판(Safety Net)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증권금융의 전액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 및 장학사업,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 꿈나눔재단의 인연은 직원분들의 정기 봉사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설거지, 배식 등 제법 고단했을 봉사활동 내내 어르신과 눈을 맞추고, 밝게 웃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인연은 어르신의 일상에 또 다른 힘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관의 사랑방 공간인 꿈나눔카페 조성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간인 탑골미술관에 지속적인 응원과 후원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덕분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오늘은 즐겁고, 내일은 더욱 기다려집니다. 어르신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만남 미래

“행복은 작은 데에 있다.”

글 교육복지과 홍지헌

50세 시인 영조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새로 나온 아디다스 축구화가 너무 갖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말에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함께 사는 아버지는 신청 가능한 대상자라는 이야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초연금을 받아내기로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초연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수 분장을 하는 철없는 50세 아들과 그 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아디다스 축구화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물한 아버지. 특수 분장에 신이 난 영조가 읊조리는 “행복은 작은 데에 있다.”는 대사는, 겉으로는 꼬장꼬장 해보이지만 아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하기 위해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돈을 번 아버지의 마음과 대비됩니다. 이들 부자의 관계를 통해 자식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썰 만남 미래

영화정보

서동훈 | 2018 | 22분 | 드라마 | 청년

오늘 소개된 서동훈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2019 서울노인영화제 관객투표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노년’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이 영화로 담겨진 서울노인영화제의 다양한 작품 감상을 원하신다면,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를 신청하세요! 영화를 안내하는 도슨트 어르신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 함께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색다른 만남을 추억을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6220.8545

TOPGOAL NEWS

지난 1월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월

- 문화가 있는 금요일 ‘금요예술무대’
-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 〈도약의 단초5〉 단체전 개막
- 조계사 떡국 나눔 행사 진행
- 세시풍속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쥐요’

2월

- 교양강좌 ‘영화로 보는 미국역사’
- 사찰음식체험 진행
- 신인작가 지원사업 〈도약의 단초5〉 정성진 작가 최종 당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휴관 및 정기방역 체제 돌입

3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김치 담그기’ 행사
- 기획프로그램 ‘인칭일기’ 서적 출판
- 손 안에서 보는 영상·문화 콘텐츠 제공

4월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템플셰프’ 깍두기 나눔
-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협약식’ 진행
- 도시농업 ‘옥상텃밭’ 허브 식재
- 탑골미술관 세대기획전 〈나이·차이·그 사이〉 개막
- 멋쟁이 사자처럼, 유미네 잡화점 마스크 후원
- 서울노인복지센터 유튜브 「탑골TV」 영상 콘텐츠 제공

나눔축제

어르신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동화약품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힘겨움을 이겨내고
함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만들어 나갈 힘을 모으는 나눔축제

2020 더 나눔: 함께, 활.명.수

온라인 행사

등산 프로젝트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산 밖에 없는 지금,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아
사회복지사, 어르신, 청년이
실시간으로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함께 산 정상 등반

온라인 모금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한 후원 모금 진행

오프라인 행사

눈덩이 챌린지
누군가의 소장품에서 시작되는 물물교환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더해가는 릴레이 후원

빅3 쿠폰
일정금액 이상 후원 시 특별한 사진촬영, 음반제작,
관장스님 차담 등 이용권 제공

활.명.수 3행시 신춘문예
유튜브 댓글창에 재미있는 3행시 짓기

후원계좌안내(예금주: 서울노인복지센터)
하나 162-910001-93604 | 우리 1005-100-356124 | 국민 006-25-0022-389 | 신한 100-030-203686
※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입금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6220.8500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화시킨 나눔축제의 달라진 모습,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2020 탑골미술관 기획초대전

주최 탑골미술관 후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KSFC Foundation

공예동행
工藝同行

김지혜
김현주
박성열
박수동
석문진
이송암
최종음

2020.5.21.- 6.20.
탑골미술관

작가와의 대화

공예 작품 속에 숨겨진 동행의 의미를 참여작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만남

동행 ❶ 김지혜, 석문진, 이송암
일시: 6.4(목) 14:00~15:00

동행 ❷ 김현주, 최종음
일시: 6.12(금) 14:00~15:00

체험공방

나영 작가와 함께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쓰임의 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업사이클 공예 체험

일시: 6.15 (월) 14:00~15:00
강사: 나영 (스튜디오 로테이트 대표)
인원: 10명 (선착순 접수)
참여비: 3,000원
☎ 접수 및 문의 02-6220-8502